◆ 04 수능 29~33번

[29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에 가 봐야 노루 꼬리만큼 짧다는 겨울 해에 점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들은 학교가 파하는 대로 책가방만 던져 둔 채 떼를 지어 선창을 지나 항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분 공장에 갔다.

[A] 제분 공장 볕 잘 드는 마당 가득 깔린 멍석에는 늘 덜 건조된 밀이 널려 있었다. 우리는 수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마당에 들어가 멍석의 귀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밀을 입 안에 털어 넣고는 다시 걸었다. 올올이 흩어져 대글대글 이빨에 부딪치던 밀알들이 달고 따뜻한 침에 의해 딱딱한 껍질을 불리고 속살을 풀어 입 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다가 제법 고무질의 질긴 맛을 낼 때쯤이면 철로에 닿게 마련이었다.

우리는 밀껌으로 푸우푸우 풍선을 만들거나 침목(枕木) 사이에 깔린 잔돌로 비사치기를 하거나 전날 자석을 만들기 위해 선로 위에 얹어 놓았던 못을 뒤지면서 화차가 닿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화차가 오고 몇 번의 덜컹거림으로 완전히 숨을 놓으면 우리들은 재빨리 바퀴 사이로 기어 들어가 석탄 가루를 훑고 이가 벌어진 문짝 틈에 갈퀴처럼 팔을 들이밀어 조개탄을 후벼 내었다.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 밀차를 밀며 나오는 인부들이 시커멓게 모습을 나타낼 즈음이면 우리는 대개 신발 주머니에, 보다 크고 몸놀림이 잽싼 아이들은 시멘트 부대에 가득 석탄을 팔에 안고 낮은 철조망을 깨금발로 뛰어넘었다.

선창의 간이 음식점 문을 밀고 들어가 구석 자리의 테이블을 와글와글 점거하고 앉으면 그날의 노획량에 따라 가락국수, 만두, 찐빵 등이 날라져 왔다.

석탄은 때로 군고구마, 딱지, 사탕 따위가 되기도 했다. 어쨌든 석탄이 선창 주변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현금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 때문에 우리 동네 아이들은 사철 검정 강아지였다.

해안촌(海岸村) 혹은 중국인 거리라고도 불리어지는 우리 동네는 겨우내 북풍이 실어 나르는 탄가루로 그늘지고, 거무죽죽한 공기 속에 해는 낮달처럼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할머니는 언제나 짚수세미에 아궁이에서 긁어 낸 고운 재를 묻혀 번쩍 광이 날 만큼 대야를 닦았다. 아버지의 와이셔츠만을 따로 빨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바람을 들이지 않는 차양 안쪽 깊숙이 넌 와이셔츠는 몇 번이고 다시 헹구어 푸새를 새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망할 놈의 탄가루들. 못 살 동네야.

할머니가 혀를 차면 나는 으레 나올 뒤엣말을 받았다.

광석천이라는 냇물에서는 말이다. 물론 난리가 나기 전 이북에서지. 빨래를 하면 희다 못해 시퍼랬지. 어느 독(毒)이 그렇게 퍼렇겠니.

겨울방학이 끝나면 담임인 여선생은 중국인 거리에 사는 아이들을 불러 학교 숙직실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숙직실 부엌 바닥에 웃통을 벗겨 엎드리게 하고는 미지근한 물을 사정없이 끼얹었다. 귀 뒤, 목덜미, 발가락, 손톱 사이까지 탄가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왕소름이 돋은 등어리를 찰싹찰싹 때리는 것으로 검사를 끝냈다. 우리는 킬킬대며 살비듬이 푸르르 떨어지는 내의를 머리부터 뒤집어썼다.

봄이 되자 나는 3학년이 되었다. 오전반이었기 때문에 한낮인 거리를 치옥이와 나는 어깨동무를 하고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커서 미용사가 될 거야.

삼거리의 미장원을 지날 때 치옥이가 노오란 목소리로 말했다.

회충약을 먹는 날이니 아침을 굶고 와야 해요. 선생의 지시대로 치옥이도 나도 빈속이었다.

공복감 때문일까, 산토닌을 먹었기 때문일까, 해인초 끓이는 냄새 때문일까. 햇빛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도, 치마 밑으로 펄럭이며 기어드는 사나운 봄바람도 모두 노오랬다.

길의 양켠은 가건물인 상점들을 빼고는 거의 빈터였다. 드문드문 포격에 무너진 건물의 형해가 썩은 이빨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제일 큰 극장이었대.

조명판처럼, 혹은 무대의 휘장처럼 희게 회칠이 된 한쪽 벽만 고스란히 남아 서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치옥이가 소곤거렸다. 그러나 그것도 곧 무너질 것이다. 나란히 늘어선 인부들이 곡괭이의 첫 날을 댈 위치를 가늠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희고 거대한 벽은 굉음으로 주저앉으리라.

한쪽에서는 이미 헐어 버린 벽에서 상하지 않은 벽돌과 철근을 ㉠ 발라 내고 있는 중이었다.

아주 쑥밭을 만들어 버렸다니까.

치옥이는 어른들의 말투를 흉내 내어 몇 번이고 쑥밭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개미처럼, 열심히 집을 지어 빈터를 다스렸다. 반 자른 드럼통마다 조개탄을 듬뿍 써서 해인초를 끓였다.

치옥이와 나는 자주 멈춰 서서 찍찍 침을 뱉어 냈다.

회충이 약을 먹고 지랄하나 봐.

아냐, 회충이 오줌을 싸는 거야.

그래도 메스꺼움은 가라앉지 않았다. 끓어오르는 해인초의 거품도, 조개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도, 해조(海藻)와 뒤섞이는 석회의 냄새도 온통 노란빛의 회오리였다.

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해인초를 쓰지? 난 저 냄새만 맡으면 머리털 뿌리까지 뽑히는 것처럼 골치가 아파.

치옥이는 내 어깨에 엇갈린 팔을 무겁게 내려뜨렸다. 그러나 나는 마냥 늑장을 부리며 천천히 걸어 해인초 냄새, 내가 이 시(市)와 나눈 최초의 악수였으며 공감이었던 그 노란빛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 오정희, 중국인 거리 -

29.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나'의 가족은 삼대에 걸쳐 구성되어 있다.
② '중국인 거리'는 '나'가 태어난 곳이 아니다.
③ 전쟁 후의 항구 도시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④ '할머니'는 생활 환경을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
⑤ 아이들은 먹을거리를 해결해야 할 상황을 힘겨워 한다.

30. 위 글에서 '석탄'이 갖는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작품의 분위기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
② 여러 장면을 묶어 주는 연결 고리가 된다.
③ 주인공의 심리를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④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⑤ 사건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31. [A]를 <보기>와 같이 바꿔 썼을 때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지금도 나는 가끔 그곳,
제분 공장의 마당을 떠올리곤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과…… 높다란 굴뚝이 있는 제분 공장, 펼쳐진 멍석에는 늘 덜 건조된 밀이 있었지요. 나이 많은 수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우리는 마당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멍석의 귀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털어 넣은 밀알……. 밀알은 올올이 흩어지고, 대글대글 이빨에 부딪치곤 했지요. 딱딱한 껍질이, 달고 따뜻한 침에 녹아, 속살을 풀 때…… 입 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던 밀알들. 우리의 무료함을 달래 주던…… 밀알이 제법 고무질의 질긴 맛을 낼 때쯤, 우리는 철로에 닿곤 했습니다.

① 회고조의 목소리가 두드러져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잘 드러낸다.
② 중심 제재를 더 자세히 묘사하여 독자에게 선명한 인상을 준다.
③ 호흡을 느리게 하여 과거의 경험을 음미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④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여 독자가 장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⑤ 친밀한 느낌을 주는 말투를 써서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를 좁혀 준다.

32.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의 '노란색(빛)' 이미지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노란색 : 병색(病色). 구역질. 기쁨, 에너지의 색. 경계·경고의 색.
○ 노랗다(관용적 표현) : 영양 결핍. 핏기 없음. 기력이 쇠함.
○ 해인초 : 홍조류의 해조. 회충약으로 쓰이거나 석회의 접착력을 높이는 데 쓰임. 끓일 때 냄새가 강함.
○ 산토닌 : 구충제. 부작용은 모든 사물이 노랗게 보이는 증세, 두통, 구토.

① 겨울의 암울한 이미지와 대비되어, 동네 아이들의 소망을 상징한다.
② '중국인 거리'의 불안정한 분위기와 그에 대한 '나'의 낯섦을 표현한다.
③ 메스꺼움과 연관되면서 '나'가 성장 과정에서 겪는 부적응 상태를 암시한다.
④ 해인초의 후각적인 이미지와 결합하여, '나'의 몽롱한 의식 상태를 드러낸다.
⑤ 공복과 산토닌이 어우러진 상태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을 시각화한 것이다.

33.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① 선생님께서 상처에 약을 발라 주셨다.
② 아이의 방을 예쁜 벽지로 발라 주었다.
③ 그는 늘 몸가짐이 발라 누구나 좋아했다.
④ 그 아이는 인사성이 발라 칭찬을 듣는다.
⑤ 어머니께서 생선에서 가시를 발라 주셨다.

- 정답: 29.⑤ 30.② 31.② 32.① 33.⑤

◆ 10년 4월 고3 22~25번

[22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석양이 오빠의 이마와 목덜미를 붉게 물들이며 방을 깊숙이 가로질렀다.

㉠ 내가 기억하는 한의 그 시간은 늘 그랬다.

함석지붕이 흐를 듯 뜨겁게 달아오르고 저녁 햇빛이 칼처럼 방 안에 깊숙이 꽂힐 즈음이면 어머니는 화장을 시작하고 오빠는 창가에 놓인, 붉은 꽃무늬의 도배지 바른 궤짝 앞에 앉아 꼼짝 않고 소리 높이 영어책을 읽었다. 나는 어머니의 곁에 앉아 갖가지 화장품이 담긴 병들을 만지작거리거나 창을 통해서 멀찍이 보이는 개울의 다리와 신작로, 그리고 더 멀리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국민학교의 창을, 점점이 **붉은빛이 묻어나는 새털구름들을 바라**보며 이유가 분명치 않은 조바심으로 어머니와 오빠 사이의, **은밀히 조성되어 가는 팽팽한 공기**를 지켜보았다.

캔 유 텔 미 홧 히 이즈 두잉? 오빠가 받은기침으로 목청을 돋우었다.

파마한 머리칼이 얽히었는지, **신경질적인 손놀림**으로 빠르게 빗질을 하던 어머니가 손을 멈추고 거울에 바짝 머리를 들이대었다. 흰 머리가 뽑혀 나왔다.

벽에 버티어 놓은 거울에, 등지고 앉은 오빠의 몸이 고집스럽게 담겨 있었다. 뽑혀 나온 새치를 손가락 사이에 들고 잠시 들여다보던 어머니가 햇빛을 피하는 시늉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거울을 옮겨 놓고 화장을 계속했다. 나무궤 위에 쌓아 놓은 우리들의 때 묻은 이부자리가 거울면에 들이찼다. 오빠의 모습은 사라졌다. 대신 **거친 손짓으로 책장을 넘기는** 바람에 낡고 눅눅해진 종이가 힘들게 찢겨지는 소리가 났다. 오빠의, 긴장으로 경직된 등이 제풀에 움찔했다.

어머니는 등 뒤의 작은 시위 — 그러나 오빠 나름대로는 필사적인 — 에 **아랑곳하지 않고 분첩**으로 탁탁 얼굴을 두들기고 가늘고 둥글게 눈썹을 그렸다. ㉡ 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오빠를 번갈아 보며,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호기심과 찬탄으로 거울 속에서 점차 나팔꽃처럼 보얗게 피어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A]

어머니가 시집올 때 해왔다는 등신대(等身大)의 거울은 이 방에서 유일하게 흠 없이 온전하고 훌륭한 물건이었다.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남루해져 가는 우리들의 가운데서 거울은, 어머니가 매일 닦는 탓도 있지만, 나날이 새롭게 번쩍이며 한구석에 버티고 있었다. 그 이물감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실체보다 훨씬 더 커보이는 건지도 몰랐다.

거울 속에는 언제나 좁은 방 안이 가득 담겨 있었다.

소꿉놀이를 하다가도, 게으르게 눈을 껌벅이며 잠에서 깨어나서도, 싸움질을 하다가도, 허겁지겁 밥을 먹다가도 문득 눈을 들면 방의 한구석에 버티어 선 거울이 자신은 볼 수 없는 등까지도 환히 비추는 바람에, 우리는 거울 속에서 낯설게 만나지는 자신에게 경원과 면구스러움을 느껴 옆으로 슬쩍 비켜서거나 남의 얼굴처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거울은 기울여 놓기에 따라 우리의 모습을 작게도 크게도 길게도 짧게도 자유자재로 바꾸어 비추었다. 언니와 나는 어머니가 없을 때면 끙끙대며 거울을 옮겨 놓고 그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를 부르거나 연극놀이를 했다. 비가 와서 밖에 나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연극놀이를 했는데 내용은 늘 똑같았다.

(중략)

나는 낮의 일들이 꼭 꿈속의 일처럼 아주 몽롱하고 멀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밤마다 술 취해 오는 어머니**, ㉢ 더러운 이불 속에서 쥐처럼 손가락을 빨아 대는 일 따위가 한바탕의 긴 꿈만 같이 여겨졌다. 진짜의 나는 안타까이 더듬어 보는 먼 기억의 갈피 짬에서 단편적인 감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닐까.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키가 몹시 컸다. 아니 그것은 덩치 큰 오빠를 향해 하던, 아버지를 쑥 빼었다는 할머니의 말에서 비롯된 연상인지도 몰랐다.

저녁을 먹은 후 바람이 서늘해지면 아버지는 나를 목에 태우고 밖으로 나갔다. 아버지의 무등을 타면 어찌나 높던지 나 자신 풍선처럼 공중에 둥실 떠오르듯 눈앞이 어지러이 흔들렸다.

곧 동생이 태어날 거다. 아버지는 내 넓적다리를 꽉 쥐며 노래 부르듯 말했다. 엄마 뱃속에 아기가 들었단다.

꼭 잡아, ㉣ 아버지의 말에 따라 아버지의 머리를 잡으면 손에서는 찐뜩찐뜩한 머릿기름이 묻어났다.

아버지는 내게 연약한 넓적다리, 혹은 발목을 잡던 악력(握力), 막연히 따스하고 부드러운 것, 보다 커다란 것, 땀으로 젖어 있던 등허리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억 역시 내 상상이 꾸며 낸

더 먼 꿈속의 일은 아니었을까.

전쟁이 끝나면 아버지가 돌아온다. 두 해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지만 할머니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정다운 기억, 희망 없는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사실에 우리는 모두 얼마쯤의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매일 술취해 돌아오는 어머니를 향해, 다만,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차갑게 협박하는 오빠까지도.

우리가 임자 없는 닭의 맛에 길들여지듯, 어머니의 지갑을 더듬는 손길이 점차 담대해지고 빼내는 돈의 액수가 많아지듯, 할머니가 단말마의 비명도 없이 도살(屠殺)의 비기(秘技)를 익혀 가듯, 그리고 종내는 눈의 정기만으로도 닭들이 스스로 죽지 밑에 고개를 묻고 너부러지듯 아버지 역시 달라져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 있던 그 긴 시간의 갈피 짬마다 연기처럼 모호히 서린 낯설음은 새로운 전쟁으로 우리 사이에 재연(再燃)될 것이기에 차라리 그립고 정답게 아버지를 추억하며 희망 없는 기다림으로 ㉤ 우리 모두 아버지가 영영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거나 돌아오지 않을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음을 변명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나 아니었는지.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부터 들려 오는 대포 소리는 고즈넉이 가라앉은 이 마을에 문득 전쟁을 상기시켰고, 드문드문 흘러드는 피난민들은 아직도 바깥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오정희, 「유년의 뜰」

2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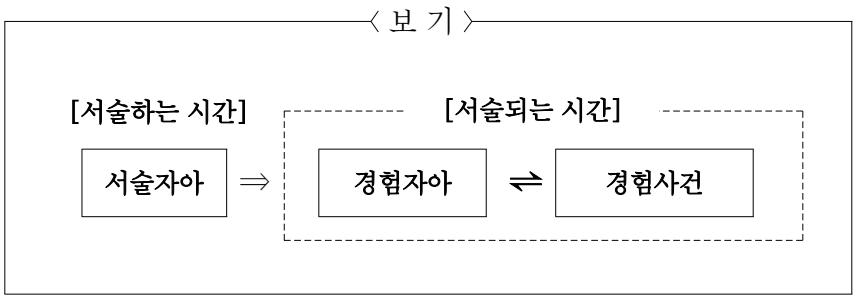
①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생각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② 인물 심리의 변화를 통해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③ 자연의 변화 과정을 세밀히 묘사하여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④ 비유적 수식어의 사용을 통해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
⑤ 시대 배경의 사실적 제시로 현실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3. 등 뒤의 작은 시위와 관련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붉은빛이 묻어나는 새털구름들을 바라'보는 것은 어머니와 오빠의 갈등에 대해 무관심한 나의 태도를 보여준다.
② '은밀히 조성되어 가는 팽팽한 공기'는 오빠와 어머니의 긴장된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다.
③ '거친 손짓으로 책장을 넘기는' 행위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다.
④ '신경질적인 손놀림'과 '아랑곳 하지 않고 분첩'을 두드리는 행위는 어머니의 심적 상태를 보여준다.
⑤ '밤마다 술 취해 오는 어머니'는 오빠의 심리적 불편함을 유발한 원인의 하나이다.

24. 위 글의 서사 구조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① ㉠ : '내'는 '서술자아'를, '그 시간'은 '서술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② ㉡ : '나'는 '경험사건'을 노출시키고 있는 '서술자아'이다.
③ ㉢ : '손가락을 빨아대는 일'은 '경험자아'의 '경험사건'이다.
④ ㉣ : 아버지가 부재하는 '서술되는 시간' 이전의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에 대한 회상이다.
⑤ ㉤ : '서술되는 시간'의 인물들의 심정에 대한 '서술자아'의 서술이다.

25. <보기>를 바탕으로 [A]에서 '거울'의 서사적 의미를 추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소설에서 전쟁 체험인 과거의 기억은 상징적 사물과 이미지의 재현으로 구현된다. 문학 작품에서 '거울'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나'를 보여주거나, 현재와 다른 시간과 연결하고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렇게 거울에 비춰진 현실 모습은 상징적 의미를 암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① '나날이 새롭게 번쩍이며 한구석에 버티고' 서있는 거울은 피난지 현실의 남루함을 부각시킨다.
② '언제나 좁은 방 안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은 초라한 삶이 거울을 통해 이미지화된 것을 암시한다.
③ '자신은 볼 수 없는 등까지도 환히 비추는' 거울은 일상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는 매개이다.
④ 거울 속에서 '낯설게 만나지는 자신'은 자신과 대면하였을 때의 느낌을 나타낸다.
⑤ '기울여 놓기에 따라'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꾸어' 비추는 거울은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나'의 의지를 드러낸다.

- 정답: 22.④ 23.① 24.② 25.⑤

◆ 15년 3월 고2 42~45번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게 오래된 옛 우물과 그 속에 사는 금빛 잉어에 대해 말해준 사람은 **증조할머니**였을 것이다.

어릴 때 살던 동네 가운데에 큰 우물이 있었다. 물맛이 달아 단샘, 커다랗다고 해서 한우물이라고도 했지만 사람들은 예부터의 습관대로 **옛 우물**이라고 불렀다. 아주 옛날부터 있어온 우물이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우물은 물이 깊고 물맛이 좋았다. 증조할머니는 내게 말했다. 옛 우물에는 금빛 잉어가 살고 있단다. 천 년이 지나면 이무기가 되고 또 천 년이 지나면 뇌성벽력 치는 밤 용이 되어 하늘에 올라가지. 아흔 살이 넘은 할머니에게서 검은 머리털이 돋아나고 텅 빈 입에 누에씨 같은 희고 깨끗한 이가 돋아나자 어머니는 그것을 불길한 재앙의 징조로 여겼다. 노망이 들었다고 말했다. 할머니에게 대꾸도 하지 않았고 바로 보지도 않았고 밥도 조금씩밖에 주지 않았다. 노망든 노인네들은 오래 산다는 속설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고양이 혼이 씌어 밤마다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며 쥐를 잡으러 다니는 광자네 할머니 같지는 않았다. 오돌이네 할아버지처럼 자기가 싼 똥을 주워 먹지도 않았다.

달빛 가득한 우물을 들여다보면 금빛 잉어가 슬몃슬몃 물 속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다. 계집아이들은 학교에서 오전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해지기 전까지 물을 길어 놓아야 했다. 두레박을 빠뜨리면 매를 맞거나 밥을 굶었지만 아이들은 늘 두레박을 빠뜨리고 저물 때까지 우물가에서 무력하고 절망적이고 공포에 찬 울음을 울곤 했다. 방심은 언제나 용서받지 못할 악덕이었다.

……(중략)……

㉠ 물이 가득 찬 두레박을 힘겹게 끌어올리다 보면 어느 결에 우물 속에서 끌어당기는 아귀센 힘이 따라올라왔다. 아앗 놀라라 하는 순간 줄이 긴장된 손아귀에서 미끄럽게 빠져나가거나 두레박에 단단히 묶었던 줄이 스르르 풀려 빈 줄만 허전하게 올라오기도 했다.

아이들은 우물 속에 금빛 잉어가 산다는 내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고 거짓말쟁이, 허풍쟁이라고 했지만 정옥이는 내 말을 믿어 주었다. 게다가 '소원을 들어주는 잉어'일 거라고 덧붙였다.

그해 여름 장마가 지나고 우물을 쳤다. 물맛이 뒤집혔기 때문이었다. 가뭄이나 큰 홍수 따위 큰일이나 나라의 변고가 있을라치면 우물이 뒤집히고 장맛이 변한다고 어른들은 믿었다. 그해의 장마는 대단했다. ㉡ 아이들은 모두 강으로 달려갔다. 어른들은 긴 장대와 망태를 들고 집을 나섰다. 학교는 휴교였다. 수재민들의 숙소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 강 건너 섬에는 포플러 가지들만이 비죽비죽 솟아 있고 그 위에 커다란 새들이 날아와 앉았다. 누런 물이 범람하는 강은 벌판 같았다. **어른들**은 강이 범람하여 둑을 무너뜨릴까 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아침이면 장대를 들고 강으로 나갔다.

아이들은 강가에서 노래를 불렀다. 장마통에 똥 덩어리가 제 이름 부르며 흘러가더라. 동동동동 똥똥똥똥. 마지막 후렴은 목소리를 모아 악을 쓰듯 질러대었다. 비바람에 새파래진 얼굴과 입술로. 강에는 없는 것이 없었다. 호박과 장롱과 양은솥, 우리에 든 채인 닭과 토끼가 사나운 물살에 실려 떠내려왔다. 인자 아버지는 꽥꽥 비명을 지르며 떠내려오는 돼지를 잡으려다가 물살에 휩쓸려 죽을 뻔했다.

동네 어른들은 우물 속에 차오르던 황토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날을 잡아 떡과 돼지머리, 과일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냈다. 고사를 지낸 뒤 남자들이 물을 퍼냈다. 그러고는 제대 군인 순옥이 삼촌이 양말과 신발을 벗고 옛날 얘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튼튼히 엮은 삼태기를 타고 우물 밑으로 내려갔다. 아이들은 순옥이 삼촌이 까무룩히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 한없이 깊고 어두운 동그라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푸른 이끼 자라는 우물의 돌 틈에서 손톱만 한 개구리들이 팔짝팔짝 뛰어오르고 빈 우물이 우우웅 웅웅깊은 소리로 울었다.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올리어어라는 순옥이 삼촌의 소리가 땅 밑으로부터 벽에 부딪혀 몇 바퀴 돌아 나오면 우물가의 남자들이 줄을 당겼다. 삼태기에는 바닥의 흙이며 녹슨 두레박과 두레박 건지는 갈고리, 삭아버린 고무신 한 짝, 썩은 나무토막, 사금파리 따위들이 한없이 실려 올라왔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까마득히 깊은 우물 속에서 허리를 굽히고 그 안의 것들을 퍼 담는 **순옥이 삼촌**은 난쟁이처럼 납작해 보였다. 삼태기가 올라올 때마다 모두들 유심히 그것들을 살펴보았다. 아무도 내려가 본 적이 없는 깊은 우물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엇인가 굉장한 것들이 있으리라는 기대였을까. 삼태기에 고운 모래흙만 담겨 올라오자 일은 끝났다. 마지막으로 순옥이 삼촌이 한 오백 살이나 나이 먹은 얼굴로 삼태기를 타고 올라왔다. 빛에 눈이 부신지 한동안 낯선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으허허 영문 모를 웃음을 터뜨렸다.

순옥이 삼촌과 우물 치던 남자들은 술을 마시러 갔고 ㉤ 아이들은 우물 턱에 조롱조롱 매달려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우물 속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우물 속에 금빛 잉어는 없었다. 그래도 **나**는 맑은 물이 그득 고이면 금빛 잉어가 살리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정옥이는, 금빛 잉어는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샘이 솟는 깊은 구멍으로 잠시 숨어 버렸을 거라고, 맑은 물이 고이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했다.

– 오정희, 「옛 우물」 –

42.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화를 통해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② 과거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③ 서술의 주체를 교체하여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④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⑤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여 자의식의 혼란을 드러내고 있다.

4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해 여름 장마' 때문에 수재민이 학교에 머물렀다.
② '나'는 '증조할머니'가 노망이 들어서 무섭다고 느꼈다.
③ '어른들'은 장마로 인해 마을이 물에 잠길까 걱정했다.
④ '순옥이 삼촌'은 우물을 나온 후 영문 모를 웃음을 터뜨렸다.
⑤ '옛 우물'이라는 이름은 우물이 지닌 특성보다는 사람들의 습관에 따라 붙여졌다.

44. 옛 우물 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나'에게 '옛 우물'은 금빛 잉어가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공간으로, 이러한 믿음은 '증조할머니'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② '증조할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태도는 '옛 우물'에 대한 나의 믿음이 변화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③ '계집아이들'에게 '옛 우물'은 고달픔을 주는 공간으로, 이는 물을 길어야 했던 의무에서 비롯한 것이다.
④ '어른들'이 '옛 우물'을 '큰일', '변고'와 관련지어 바라본다는 점에서, '옛 우물'은 비합리적 믿음의 대상이다.
⑤ '정옥'은 '나'를 비난하는 아이들과 달리 '나'의 편을 들며, '옛 우물'에 대한 '나'의 믿음을 지지해 주었다.

45. 문맥적 의미를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우물에 대한 친구들과의 추억에서 비롯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② ㉡: 장마로 인한 사람들의 비일상적 행동이 드러나고 있다.
③ ㉢: 큰물이 다 빠져나간 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④ ㉣: 우물 속을 내려가는 사람의 두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⑤ ㉤: 우물 속 존재에 대한 아이들의 들뜬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 정답: 42.② 43.② 44.② 45.②

◆ 10-6평 23~26번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교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5시에 ㉠컨베이어 앞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선생님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일은 꼭 학교에 나오라고 한다.

"우선 학교에 나와서 얘기하자."

버스에 올라탄 선생님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든다. 선생님의 손 뒤로 공장 굴뚝이 울뚝울뚝하다. 처음으로 공장 속에서 사람을 만난 것 같다. 버스가 떠난 자리에 열일곱의 나, 우두커니 서 있다. 선생님의 손길이 남아 있는 내 어깨를 내 손으로 만져 보며.

다음날 교무실로 나를 부른 선생님은 내게 반성문을 써 오라 한다.

"하고 싶은 말 다 써서 사흘 후에 가져와 봐."

㉡반성문을 쓰기 위해 학교 앞 문방구에서 대학 노트를 한 권 산다. 지난날, 노조 지부장에게 왜 외사촌과 내가 학교에 가야만 하는가를 뭐라구 뭐라구 적었듯이 이젠 선생님에게 학교 가기 싫은 이유를 뭐라구 뭐라구 적는데 어느 참에서 마음속의 이야기들이 왈칵 쏟아져 나온다. 열일곱의 나, 쓴다. 내가 생각한 도시 생활이란 이런 것이 아니었으며, 내가 생각한 학교 생활도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A] 나는 주산 놓기도 싫고 부기책도 싫으며 지금은 오로지 마음속에 남동생 생각뿐으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애와 함께 살고 싶다고. 반성문은 노트 삼분의 일은 되게 길어진다.

반성문을 다 읽은 선생님이 말한다.

"너 소설을 써 보는 게 어떻겠냐?"

내게 떨어진 소설이라는 말. 그때 처음 들었다. 소설을 써 보라는 말.

그는 다시 말한다.

"㉢주산 놓기 싫으면 안 놓아도 좋다. 학교에만 나와. 내가 다른 선생들에게 다 말해 놓겠어. 뭘 하든 니가 하고 싶은 걸 하거라. 대신 학교는 빠지지 말아야 돼."

그는 내게 한 권의 책을 건네준다.

"내가 요즘 최고로 잘 읽은 소설이다."

표지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씌어 있다.

(중략)

[B] 최홍이 선생님. 이후 나는 그 선생님을 보러 학교에 간다. 어색한 이향*으로 마음에 가둬졌던 그리움들이 최홍이 선생님을 향해 방향을 돌린다. 열일곱의 나, 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가지고 다닌다. 어디서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읽는다. 다 외울 지경이다. 희재언니가 무슨 책이냐고 묻는다.

"소설책."

소설책? 한번 반문해 볼 뿐 관심 없다는 듯이 희재언니가 고갤 떨군다. 최홍이 선생님이 마음 안으로 가득 들어찬다.

정말 주산을 놓지 않아도 주산 선생님은 그냥 지나간다. 부기 노트에 ㉣대차대조표를 그리지 않아도 부기 선생은 탓하지 않는다.

주산 시간에 국어 노트 뒷장을 펴고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겨 본다.

[C]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열일곱의 나는 컨베이어 위에서도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기고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고.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고.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다,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고.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고.

그가 소설책을 써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 대신 시를 써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으면 나는 시인을 꿈꾸었을 것이다. 그랬었다. 나는 꿈이 필요했었다. 내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큰오빠의 가발을 담담하게 빗질하기 위해서, ㉤공장 굴뚝의 연기를 참아 낼 수 있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소설은 그렇게 내게로 왔다.

십이월 중순이 지날 때까지 나는 한경신 선생이 보낸 편지를 가방에 넣고 다녔다. 가끔 편지를 꺼내 전화는 오후 5시 30분 이후부터 9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대목을 읽어 보곤 했다. 842-××××. 몇 번 편지를 꺼내 읽고 다시 넣고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끝내 전화하지 못했다. 시간은 자꾸 흘러 한경신 선생이 학교에 왔으면 하는 기간인 12월 초와 중순을 지나갔다. 이제는 방학을 했겠구나, 싶었을 때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서랍에 넣으면서 그 학교를 떠나온 햇수를 헤아려 봤다. 떠나온 지 십삼 년이다. 이제는 그때의 일들이 나에게는 객관화가 되어 있으려니 했다.

[D]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을 땐 나는 그 시절을 다 극복한 것도 같았다. 그래서 그 시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자세히 써 보기로 했다. 그때의 기억을 복원시켜 내 말문을 틔워 보고 내 인생의 폐문 앞에서 끊겨 버린 내 발자국을 연결시켜 줘 보기로.

- 신경숙, '외딴 방_ -

* 이향 : 고향을 떠남.

23. ㉠~㉤에 대한 '나'의 심리적 태도가 다른 하나는? [1점]

① ㉠ ② ㉡
③ ㉢ ④ ㉣
⑤ ㉤

24. 다음은 작가가 남긴 창작 노트의 일부이다. 이 노트의 내용이 [A], [B]에 실현된 양상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시제의 변화 ····· ⓐ
- 문단 나누기의 효과? ····· ⓑ
- 간결한 문장 위주로 쓸 것 ····· ⓒ
- '나'를 부르는 방식에 변화를 줄 것 ····· ⓓ
- 대화보다는 심리 묘사 위주로 ····· ⓔ

① ⓐ는 [A]에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이야기 전개 속도를 높이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② ⓑ는 [A]에서 문단 사이에 여백을 주어 인과 관계를 명료화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③ ⓒ는 [B]에서 간결한 문장을 주로 사용하여 과거를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④ ⓓ는 [B]에서 서술자가 스스로를 가리키는 방식을 달리하여 내적 분열을 강조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⑤ ⓔ는 [B]에서 대화를 최소화하여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25.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의 고단한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② '나'가 소설 쓰기를 배워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③ '나'가 창작의 어려움을 깨달아 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④ '나'가 소설을 옮겨 적으며 스스로 위안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⑤ '나'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대해 보이는 애착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여 준다.

26. [D]는 작품 창작의 동기를 작품에 직접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 [D]와 성격이 유사한 것은?

<보 기>

목중 : 오랜만에 나왔으니 예전에 하던 소리나 한번 해 보자. 어어으 아-.
옴중 : (뒤에서 달려 나와 탁 치며) 야, 이놈아!
목중 : 이크, 이게 웬 일이냐. 어느 광대 놈이 나오자마자 사람부터 쳐. ····· ①
옴중 : 송아지 풀 뜯어 먹고 울 듯이 '어어으 아' 하면서 나왔다니 거 무슨 말이야? ····· ②
목중 : 내가 나오기는 부모 배 밖에 이제 나왔다고 한 것이 아니라 놀이판에 나오길 이제 나왔단 말이야. ····· ③
옴중 : 옳지. 그럼 우리 여기 모인 양반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받게 제대로 놀아 보자. ····· ④
목중 : 너 그러나 저러나 그 쓴 게 뭐냐?
옴중 : 쓰긴 내가 뭘 써. 일수(日收)를 써 월수(月收)를 써? ··· ⑤

— 「양주별산대놀이」 개작 —

- 정답: 23.② 24.③ 25.③ 26.④

◆ 06년 10월 고3 37~41번

【37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건달패 노름꾼인 아버지와 장돌뱅이 어머니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나는 어린 시절 굶주림에 대한 공포감, 피투성이가 되어서야 끝나는 부부싸움, 어머니의 심한 폭력 속에서 잡초처럼 자란다. 그 후 도청 소재지의 고등학교에 들어간 나는 1년도 채 못 되어 자신이 비천한 장돌뱅이 출신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퇴를 하고 장터로 되돌아온다.

세상에 대한 무기로서 나는, 그 무렵 알기 시작한 문학을 빼놓을 수가 없다. 뜰마니 시절, 나 같은 얼치기는 흔히 사건을 처리하기보다는 사건을 키우기 마련이어서, 어느 날 건달패를 따라 노름빚을 받으러 갔다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자칫 겁을 준다는 것이 그만 상대방의 머리통을 깨 버렸고, 나는 결국 사건이 무마될 때까지 장터를 떠나야 했다. 나는 할 수 없이 다시 도청 소재지로 갔고, 거기에 있는 친척집에서 몇 달을 숨어 지냈다.

바로 거기서 나는 문학을 만난 것이었다. 친척집의 서가에는 세계 문학 전집을 위시하여 한국 문학 전집 따위가 장식용 비슷하게 꽂혀 있었는데, 지방관청의 주사 급이던 친척은 술이라도 얼큰한 날이면 나를 불들고 서가를 자랑하며 자신의 문학 취미에 대해서 가로세로 떠들곤 하였다. 나로서는 문학이 처음이었다. 문학마저도 ㉠ 장돌뱅이 부류는 낄 수 없는 보다 정신적이고 고귀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던 나는 한두 권 소설을 읽어 나가는 동안에 벼락이라도 맞듯 충격을 받았다.

'이건 바로 내 이야기 아닌가!'

어떤 소설은 나보다도 형편없는 개차반 인생이 바로 그 개차반 인생을 그것도 무슨 자랑이라고 중언부언 늘어놓고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바로 그 개차반 인생이 그런 이야기로 작가가 되고, 그리하여 당당하게 세상에 끼어들었다는 점이었다. 문학이 그런 식이라면 나도 얼마든지 자신이 있었다. 당시 내가 이해한 문학은 내가 세상에 끼어들 수 있는 일종의 문 같은 것이었다.

친척의 서가에서 앤솔러지를 발견하고, 그리하여 차츰 시를 알기 시작했을 때, 나는 소설보다는 시를 쓰기로 작정을 하였다. 아무리 영악한 체하지만 역시 어렸던 나로서는 자신의 치부를 날날이 세상에 까 보일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치부는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있는 듯 없는 듯 잘도 꼬리를 감추는 시 쪽이 훨씬 매력적이었다. 내가 뜰마니 시절에 배운 세상을 속이는 방법과 ㉡ 시가 지닌 상징이나 은유 따위의 애매모호한 기교는 신기하게도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았다.

다시 복학을 하자 나는 자신의 기대 이상으로 문학을 잘하였다. 시 쪽을 택한 나의 궁리도 잘 맞아떨어져서 나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 놓지 않고서도 거뜬히 세상에 끼어들 수 있었다. 몇 군데인가 백일장을 휩쓸자 당연히 내 이름은 도청 소재지의 남녀 고등학교 문예반에 알려졌고, 모르는 여학생들로부터 심심하지 않게 편지도 받았다.

아아, 처음으로 여학생의 편지를 받았을 때의 감격이라니! 나에 대한 동경으로 거의 글씨마저 떨리는 듯한 그 편지는, 처음에 나에게 일종의 면죄부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랬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심지어 감추어진 치부까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은 듯이 착각될 지경이었다. 그러나 감격의 순간이 지나자 나는 곧이어 냉정하게 사태를 파악했다. 착각하지 마라. 너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은 그렇듯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 고작 철없는 여학생 한 명이 너에게 속아 넘어간 것뿐 아닌가. 그것도 정작 네가 아닌 너의 문학에.

편지가 아니라 실제로 여학생을 대하고 그리하여 나에 대한 호감을 확인했을 때도 나는 마찬가지였다. 도청 소재지에는 ㉢ 남녀 고등학교 문예반에서 한두 명씩 뽑혀 나와 만들어진 문학동인회가 있었고, 마침내 나도 거기에 가입하게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서로 작품을 돌려 읽고 평을 하는 식의 모임이었는데, 신입 회원으로 첫 인사를 하던 때의 기억을 나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아무리 무기를 지니고 단단히 무장을 했다고 해도 역시 어린 나이였다. 나에 대한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눈들을 대하는 순간 나는 또다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금 저 아이들은 혹시 내 치부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온몸이 후들후들 떨려 왔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나는 이를 악문 채 고개를 빳빳이 세웠다. 당시의 나에게, 적어도 그들만큼은 세상을 속이는 나와는 달리 올바르게 문학을 하는 셈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들이었다. 바로 그들에게 내 치부를 들킨 것이었다. 그런 나를 누군가가 구해 주었다.

"댁의 명성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만 목에 힘 빼세요."

얼굴이 달걀처럼 갸름한 여학생이었다. 여학생의 말에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크게 입을 벌려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어떤 허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 올라왔다. 엉뚱하게도, 나는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마치 그들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었다. 여전히 웃고 있는 그들을 보며 나는 이런 식일 바에는 차라리 자신의 치부를 들키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한바탕의 웃음과 함께 인사가 끝났을 때, 얼굴이 갸름한 여학생이 다시 나에게 말을 건넸다.

(가)
"무슨 색을 좋아하세요?"
여학생의 질문이 나에게는 왜 그렇듯 잔인하게 들렸던 것일까. 나는 마치 여학생을 짓뭉개는 기분으로 대답했다.
"빨간색이오."

얼마 후 그 여학생에게서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화장실에 버렸다. 여학생의 편지를 화장실에 버린 행위는, 단순하고 유치한 심리와는 달리, 나의 일생을 통해 두고두고 영향을 끼쳤다. 물론 당시의 나로서는 까마득히 몰랐지만 그것이 일테면 나의 위악(僞惡)의 시초였던 셈이다. 훗날 대학 시절을 거치면서 이 위악이야말로 나에게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살찌우는 자양분이 되어 있었다.

돌이켜보면, 대학 시절, ㉤ 세상에 대한 나의 무기는 바로 위악이었을 터이다. 사회과학 식으로 말한다면 위악이 나의 이데올로기였던 것이다. 이 위악은 자연스럽게 죽음이라거나 탐미주의 혹은 허무주의 등과 뒤섞여 세상에 대하여 깊게 병든 한 청년의 문학이 되어 갔다.

– 송기원, 아름다운 얼굴 –

3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고백체 형식의 과거 회상을 통해 인물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② 시대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유랑하는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다.
③ 반어적 상황 설정으로 인물의 기대와 현실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④ 인상적인 사건들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통해 현실 비판적인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⑤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8. <보기>의 관점과 가장 잘 어울리는 태도로 위 글을 감상한 학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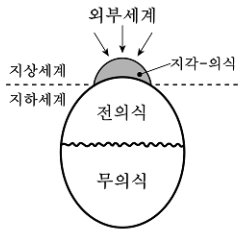
< 보 기 >

학생들의 감상 행위는 작가의 개성적 인식과 작품의 미학적 특성을 체험하는 차원을 넘어서 스스로의 삶을 작품 속에 투사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작업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삶의 진실을 발견해가는 창조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① 정빈 : 요즘에는 영상 예술이 유행이어서 작품 속의 인물들처럼 문예반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경우를 무척 찾아보기 힘들어.
② 형석 : 내 꿈은 소설가인데, 주인공이 소설보다 시를 선택했다고 말하는 장면을 접하고는 시를 써 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어.
③ 우진 : 여학생이 보낸 편지를 화장실에 버리는 주인공의 모습이 안타까워. 여학생의 마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의 상황과 처지에 연민을 느꼈어.
④ 윤철 :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수함을 포기하지 않고 활달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사람은 누구나 낙관적인 인생관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⑤ 규삼 : 주인공의 삶의 굴곡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 나도 스스로를 부정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내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39.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가장 적절히 이해한 것은? [3점]

< 보 기 >



프로이트는 인간이 유년 시절 겪은 트라우마(정신적 상처)가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다가 특정한 계기를 통해 변형된 형태로 전의식을 거쳐 의식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때 트라우마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전이되는 과정에는 이를 가로막는 방어기제가 작동하고, 그 결과 트라우마는 꿈, 증상, 실수, 문학작품 등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① ㉠의 '장돌뱅이', ㉡의 '기교'와 ㉢의 '문학동인회'는 '나'의 트라우마가 의식 세계로 나타나는 과정에 작용한 방어기제라 할 수 있다.
② ㉠의 '장돌뱅이 부류'는 '나'의 의식 세계의 트라우마를, ㉣의 '정상적인 가정'은 '나'의 무의식 세계의 트라우마를 각각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의 '장돌뱅이'는 '나'의 트라우마 형성의 주된 요인으로, ㉥의 '위악(僞惡)'은 그 트라우마가 의식 세계로 나타나지 않도록 가로막는 방어기제로 볼 수 있다.
④ ㉢의 '문학동인회'와 ㉣의 '정상적인 아이들'은 '나'의 트라우마를 형성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⑤ ㉥의 '위악'은 유년시절 형성된 '나'의 무의식 속의 '트라우마'로, ㉡의 '시'는 이것이 의식 세계로 변형되어 나타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40.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여학생의 질문에는 '나'에 대해 느끼고 있는 호감이 담겨 있다.
② '나'의 대답은 성난 감정과 공격성이 드러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만든다.
③ 질문은 상냥하고 다정한 어조, 대답은 무뚝뚝하고 매몰찬 어조로 했을 것이다.
④ '나'는 여학생과의 관계가 빠르게 냉각되는 것에 아쉬움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⑤ 질문한 여학생은 '나'의 대답을 듣고는 대답에 담긴 속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41. 가로세로 떠들곤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① 횡설수설(橫說竪說)
② 동문서답(東問西答)
③ 중구난방(衆口難防)
④ 유구무언(有口無言)
⑤ 설왕설래(說往說來)

- 정답: 37.① 38.⑤ 39.③ 40.④ 41.①

◆ 03 수능 52~56번

[52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온몸이 그닐거리고 쑤셔 잠은커녕 진드근히 누워 있을 수도 없었다. 무슨 핑계를 대고 빠져나갔던가는 기억해 낼 수 없다. 내가 다시 결혼 잔치가 끝나 갈 석공네 마당으로 달려들었을 때, 밭마당의 모닥불은 거진 사위어 버리고 사람 하나 얼씬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풍장 소리와 노랫소리는 사립 울안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여전히 누군가가 '소리'를 부르고 있었다. 멍석 너덧 닢내기만한 안마당엔 어른들이 겹겹으로 둘러서서 모두가 엉덩이를 궁싯궁싯 들썩대며, 그러나 하나같이 군소리를 참고 눈과 얼굴로만 흥겨워하고 있었다.

누구 음성이었을까, 생전 처음 들어 본 그 구성진 가락은.

"석탄 백탄이 타는데, 연기만 펑펑 나는데에…… 이 내 가슴 타는데, 연기가 하나도 안 나는데……."

나는 키가 모자라 사람 다리만 빽빽한 쪽마루에 비비대고 올라가 넘어다보았다. 그리고 놀랐다. 놀라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한 손으로 주안상 가장자리를 두들겨 가며 앉아서 노래하는 어른, 코와 눈이 그렇게 크고 음성 또한 굵직한 신사, 그이는 아버지였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황홀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여 얼마를 두고 뚫어지게 바라보았으나 분명 아버지였다. 당신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에 도취된 모습이기도 했다.

우선 석공네 울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고, 노래를 하는 것도 사실일 수가 없으련만, 모든 것은 눈에 보인 그대로였다. 아버지는 안팎 동네 어느 누구네 집도 울안은 들어가 본 적이 없는 터였다. 일가 간인 한산 이가네로서 노인을 모시는 집안이거나 당내 간의 사랑이라면 더러 출입이 있었을 따름이요, 그것도 울안에 발을 들인 일이란 한 번도 없던 터였으니, 하물며 전에 일갓집 행랑살이를 했던 사람네 집이겠던가. 신 서방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아버지의 맞은편에 꿇어앉은 석공은 연방 싱글벙글 웃어 가며 솟음솟음하는 신명을 어쩌지 못해 답답한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노래를 마치자 요란스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신 서방이 두 손에 술잔을 받쳐 드니 석공은 주전자를 기울였다. 아버지가 술잔을 받아 들자 신 서방은 일어서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아, 나는 그때 또 한 번 크게 놀라고 말았다. 다시 한 번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음이니 그것은 아버지가 일어서서 어깨춤을 추기 시작한 거였다.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할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무릎 꿇고 조아려 공손하기가 몸종과 다름없었지만, 처자 앞에서는 단란하고 즐거워 웃더라도 결코 치아를 내보인 일이 없게 근엄하되, 한내천 백사장에 강연장이 설치되면 뜨내기 장돌뱅이까지도 전을 걷어치울 정도로 수천 군민이 모여들게 마련이었으며, 산천이 들렸다 놓인다 싶게 불 뿜듯 웅변을 했는데, 그때마다 청중들로부터 천둥보다 더 우렁찬 환호와 박수갈채를 얻고 당신을 알던 모든 사람들한테 선생님이란 경칭을 받았던, 저만치 멀리로 건너다 보이며 어렵기만 한 사람이었다. 어디 그럴 법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남의 집 울안 출입에 노랫가락과 어깨춤…….

신기함과 경이로움을 주체하지 못해 나는 몹시 당황했지만 그러나 그런 거북스러움도 [㉠] 가셔지고 있었다. 멍석 가장자리로 둘러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덩달아 함께 어울려 춤을 추기 시작했던 것이며, 그 속에는 작대기 막대기와 새끼 타래를 내던진 쌍례 아배와 복산 아배, 덕산이와 조패랭이가 섞인 채 누구보다도 흥겨워 몸부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흥겨움에 감싸여 흐른 밤은 얼마나 되었을까.

모든 사람들의 배웅을 뒤에 두고 나는 아버지 뒤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아버지 그림자를 밟지 않기 위해 나는 이만큼 뒤처져 걷고 있었는데, 그림자가 너무 길다고 느껴져 불현듯 하늘을 우러르니, 달은 어느덧 자리를 거의 다 내놓아 겨우 앞치마만한 하늘을 두른 채 왕소나무 가지 틈에 머물고 있었으며, 뒷동산 솔수펑이의 부엉이만이 잠 못 들어 투덜대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랑 앞에 이르도록 헛기침 한 번 없이 여전 근엄하였고, 나는 버긋하게 지쳐 놓은 대문을 돌쩌귀 소리 안 나도록 조용히 여닫으며 들어가 이내 곤한 잠에 떨어져 버렸다. 이튿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요 위가 질펀하니 한강이었고 아랫도리가 걸레처럼 척척했으나 부끄러워서 일어날 수도 없었다.

"삼십 년을 모시면서 보기를 첨 보겄다. 아마 평생 첨이실 걸……." 어머니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저만 첨인 중 알았더니 아씨두유?" 옹점이 대꾸하는 소리도 들려왔다. 나중 안 일이지만, 어머니에게 평생 처음으로 보인 일이란 그날 밤에 아버지가 손수 행한 바의 모두를 말함이었다. 귀로에 한쪽 발을 헛디뎠던 일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양말 한 짝이 마당가 우물 도랑물에 젖어 있었다던 것이다. 어쨌든 그날 밤에 있었던 아버지의 거동은 오랫동안 여러 동네의 큰 화젯거리였은 줄 안다. 모두들 처음이며 아울러 마지막일 터임을 미루어 볼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석공의 추억이 일기 시작하면, 내가 즐겨 놀았던 마당으로서보다도 나의 아버지가 평생에 단 한 번 객스럽게 놀아 보신 장소라는 데에 보다 소중함이 느껴져서 잊지 못해 해 온 사실을 밝혀 두고 싶다.

- 이문구, 관촌수필 -

52. <보기>와 같은 접근 방식을 통해 윗글을 비평한 것은?

<보 기>

작품을 비평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자기의 관점에 따라 작품을 바라보는 일이다. 관점이란 쉽게 말한다면 '소설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관점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비평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매우 영향력 있는 몇몇 관점들로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들 중에서 '소설은 풍속(風俗)의 재현(再現)'이라는 관점을 취하면, 외적인 정보를 끌어들여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① 소설을 읽는 일은 소설 속 인물과의 가상 대화를 의미하는데, 이 글에서는 인물들 간의 관계나 주변 인물들의 태도 자체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아 그 의미가 반감된다.

② 소설은 그 근본이 이야기니까 문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 글은 속도감도 적당하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힘은 물론 감칠맛 나는 면모도 지니고 있어 매우 매력적이다.
③ 소설의 핵심은 갈등이 형성되고 해소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데, 이 글에서는 별다른 외적 갈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소설의 묘미를 맛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낮게 평가된다.
④ 소설의 본질적인 기능은 작품이 제시하는 주제를 통해 깨달음을 주는 것인데, 이 글은 가족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어 그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호감이 간다.
⑤ 소설의 구조와 현실의 구조는 서로 닮는다고 하는데, 이 글은 해방 직후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삼았다고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시대상은 그리고 있지 않아 좋은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고 본다.

53. 윗글의 서사적인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사건의 관찰과 서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두었다.
② 사건에 대한 정보 전달자를 장면별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③ 초점이 되는 인물을 형상화하는 방법으로 묘사를 도입하 있다.
④ 공간적 배경의 속성이 사건의 의미와 밀접하게 연관되 있다.
⑤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대상의 특성이 드러나는 서술 방식 취하고 있다.

54.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아버지'의 전기(傳記)의 한 부분 <보기>와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이어질 내용의 요지로 가 적절한 것은?

<보 기>

5장 아버지의 ○○○

검정새 작다 하고 붕새야 웃지 마라
구만 리 높은 하늘 너도 날고 저도 난다
두어라, 나는 새긴 한가지니 그나 너나 다르랴

- 이 택 -

지금도 우리 집 벽에 걸려 있는 이 시조를 볼 때마다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이 시조를 읊으시면서 스스로의 몸가짐을 가다듬고는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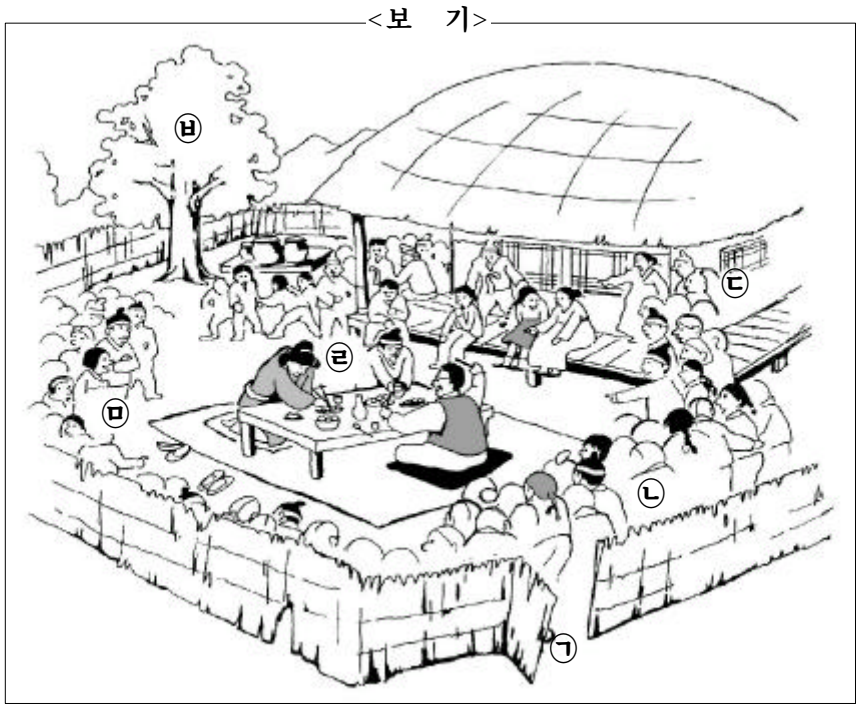
_____

_____

① 아버지는 할아버지 앞에서 아들로서 예의를 다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으셨다. 또한 우리 식구들 앞에서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셨다. 그만큼 자기 관리에 철저한 분이셨다.
② 언젠가 아버지는, 나는 물론 우리 가족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평소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것이었다. 비록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만 강렬한 인상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③ 당시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신분 질서를 의식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일가의 행랑살이를 하던 이의 잔치 마당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셨다. 아버지는 통념을 넘어서는 용기와 포용력을 보여 주셨다.
④ 당시 아버지는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고 계셨다. 마을 사람들은 대중을 상대로 연설을 하는 아버지를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늘 어려운 분으로 생각되었다.
⑤ 아버지는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하여 마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다. 공적으로는 매우 엄격하셨지만 사적으로는 격의 없는 만남을 유지하셨다. 그렇듯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 주셨다.

55. 윗글을 TV 드라마로 만들면서 '잔칫집 장면'을 위해 <보기>와 같이 야외 세트를 구성하였다. 원작의 시점(視點)을 유지한다고 할 때, 카메라를 이동, 배치할 곳은? [1.8점]

<보 기>



① ㉠→㉡→㉢
② ㉠→㉤→㉣
③ ㉠→㉤→㉯
④ ㉠→㉡→㉢→㉤
⑤ ㉠→㉤→㉣→㉯

56. ㉠에 '행동이나 사태, 감정 따위가 은근하게 조금씩 변화하는 모양'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넣는다고 할 때, 알맞은 것은?

① 가만가만 ② 너울너울 ③ 스멀스멀
④ 슬몃슬몃 ⑤ 어른어른

- 정답: 52.⑤ 53.② 54.③ 55.① 56.④

◆ 20 수능 30~32번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는 중풍으로 쓰러져 정상적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였다. 때문에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

한번은 내가 아버지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에 겉에 허연 인공 설탕 가루를 묻힌 '미키대장군'이라는 **캐러멜**을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널름 집어먹은 적이 있었다. 하나에 이 원, 다섯 개에 십 원이었다. 잠시 뒤에 돌아온 아버지는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아채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 목덜미에 당수를 한 대 세게 내려 꽂는 것이었다. 그 캐러멜 갑 안에 미키대장군이 몇 개 들어 있는지조차 훤히 꿰차고 있는 아버지였다.

—이런 민한 종간나래! 얌생이처럼 기러케 쏠라닥질을 허자면 이 가게 안에 뭐이가 하나 제대로 남아나겠니, 응?

그러고 나서는 좀 머쓱했는지 입이 한 발쯤 튀어나와 뾰로통해서 서 있는 내게 미키대장군 네 개를 집어 내미는 거였다. 어차피 짝이 맞아야 파니까니, 하면서 억지로 내 손아귀에 쥐어 주었다. ㉡나는 그 무허가 불량 식품인 캐러멜 네 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쥔 채 서 있었다.

—늴큼 털어 넣지 못하겠니, 으잉?

목덜미에 아버지의 가벼운 당수를 한 대 더 얹은 다음에야 한입에 털어 넣고 돌아서 나왔다. 아버지도 가게 일을 수월하게 보려면 잔심부름꾼인 나를 무시하고는 아쉬울 때가 많을 터였다. 워낙 짧은 밑천으로 가게를 꾸려 가자니 아버지는 물건 구색을 맞추느라 하루에도 많을 때는 세 번까지 시장통 도매상으로 정부미 포대를 거머쥐고 종종걸음을 쳐야 했고, 막내인 나는 번번이 아버지의 뒤로 **팔을 늘어뜨린 채** 졸졸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땐 그게 죽도록 싫었다. 하마 **시장통**에서 야구 글러브를 끼거나 조립용 신형 무기 장난감 상자를 든 **반 친구**를 만나거나, 심지어 과외나 주산 학원을 가는 여자 아이들을 만나는 날에는 정말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중략)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정부미 자루를 날라 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한숨을 돌린 뒤 자루를 풀고 물건을 정리해 보니 스무 병이 와야 할 소주가 두 병이 모자란 채 열여덟 병만 온 것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맞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 왜냐하면 그 덜 온 두 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몽땅 팔아 봤자 결국 본전치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내 등을 떼밀어 물건을 받아 온 수도상회의 혹부리 영감한테 내려 보냈다. 아버지는 말주변도 말주변이었지만 **중풍 후유증** 때문에 약간의 **언어 장애**가 있어 일부러 나를 보냈던 것이다.

—뭐 하러 왔네?

가게 안에 북적거리는 손님들에게 셈을 치러 주느라 몇 번이고 주판알을 고르는 데 바쁜 혹부리 영감의 눈길을 잡아 두는 데 성공한 나는 더듬더듬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러나 귓등에 연필을 꽂은 채 심술이 덕지덕지 모여 이뤄진 듯한 왼쪽 이마빡의 눈깔사탕만 한 혹을 어루만지며 듣던 ㉣혹부리 영감은 풍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굵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애초 자기 눈앞에서 까 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였다. 나중엔 아버지까지 함께 내려가서 하소연을 해 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성 경고뿐이었다. 거래가 끊긴다면 아버지한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혹부리 영감은 아버지한테 무슨 큰 특혜를 내려 주듯이 거래를 터 준다고 허락을 놓았었다. 같은 함경도 동향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하긴 혹부리 영감한테는 매번 소주 열 병 안짝에다 새우깡 열 봉지, 껌 대여섯 개, 빵 예닐곱 개 등 일반 소매 가격 구매자보다 더 많은 물건을 떼어 가지도 않으면서 부득부득 도맷값으로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해 쌓는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 거의 표가 나지 않을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열여덟 병의 소주를 넋 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는 기어코 아들인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아! 아버지…….

- 김소진, 「자전거 도둑」 -

3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혹부리 영감의 위협적인 경고 때문에, 아버지는 혹부리 영감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② 아버지는 소주 두 병을 덜 받아 왔기 때문에 곤란했지만, '나'에게 당황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③ 아버지는 '나'의 잘못을 묵인했지만, 혹부리 영감과의 잘못된 거래는 바로잡으려 노력했다.

④ 혹부리 영감은 가게 일로 바빴지만, '나'의 자초지종을 듣고 마지못해 '나'의 염려를 덜어 주었다.

⑤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우울해 하는 '나'를 기분 좋게 하려 노력했다.

31.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를 각별한 애정으로 운영하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아버지의 '생존 이유'를 짐작하게 했겠어.
② '캐러멜'을 먹었다고 화를 냈다가 남은 '캐러멜'을 '나'의 손에 쥐어 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아버지가 속마음을 드러내는 데 서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했겠어.
③ '팔을 늘어뜨린 채' 아버지를 따르던 '나'가 '시장통'에서 '반 친구'를 만났던 경험은, '나'에게 궁핍으로 인한 내면의 상처로 남은 기억이겠어.
④ '중풍 후유증' 때문에 '언어 장애'가 있는 아버지 대신 혹부리 영감을 상대하게 된 경험은, '나'에게 어린 나이에 이해타산적인 어른들의 세계를 느끼게 한 기억이겠어.
⑤ '거래를 끊어도' 표가 나지 않을 사람이었던 아버지와 거래를 끊지 않은 혹부리 영감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느끼게 했겠어.

32.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나'는 주로 세 가지 서술 방식을 활용한다. 첫째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 둘째는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만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그 묘사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한다. 셋째는 서술자가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유년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둘째 방식에서처럼 그 묘사에 대해 해석해야 한다. 셋째 방식에 유년 '나'의 심리가 함께 서술되면 독자는 인물의 심리에 쉽게 공감하게 된다.

① ㉠: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설명하여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겠군.
② ㉡: 서술자가 유년 '나'의 행위를 묘사하여 독자는 그 행위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겠군.
③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아버지의 내면을 스스로 해석하겠군.
④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혹부리 영감의 모습과 행동을 묘사했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장면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겠군.
⑤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하면서 유년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는 그 심리에 공감하겠군.

- 정답: 30.① 31.⑤ 32.⑤

◆ 07년 6월 고2 13~16번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는 중풍으로 쓰러져 정상적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였다. 때문에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

한번은 내가 아버지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에 겉에 허연 인공 설탕가루를 묻힌 '미키대장군'이라는 캐러멜을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널름 집어먹은 적이 있었다. 하나에 이원, 다섯 개에 십원이었다. 잠시 뒤에 돌아온 아버지는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아채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 목덜미에 당수를 한 대 세게 내려꽂는 것이었다. 그 캐러멜갑 안에 미키대장군이 몇 개 들어 있는지조차 훤히 꿰차고 있는 아버지였다.

[A] 이런 민한 종간나래! 얌생이처럼 기러케 쏠라닥질을 허자면 이 가게 안에 뭐이가 하나 제대로 남아나겠니, 응?

그러고 나서는 좀 머쓱했는지 입이 한 발쯤 튀어나와 뾰로통해서 서 있는 내게 미키대장군 네 개를 집어 내미는 거였다. 어차피 짝이 맞아야 파니까니, 하면서 억지로 내 손아귀에 쥐어주었다. 나는 그 무허가 불량식품인 캐러멜 네 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쥔 채 서 있었다.

(중략)

한 닷새쯤 지났을까, 아버지와 나는 다시 그 수도상회로 물건을 떼러 갔다. 아버지는 또 고만고만한 물건들로 구색을 맞춰 골랐고 흑부리영감은 일일이 헤아린 다음 우리 부자가 가져온 정부미 자루에 집어넣으라고 손짓을 했다. 아버지와 나는 허겁지겁 물건들을 자루에 휩쓸어 담았다. 평소와 달리 아버지의 손은 약간 떨려서 헛손질을 많이 해 일부러 나한테 훼방질을 놓는 사람 같았다.

내가 그 이유를 모를 리가 있겠는가. 아버지는 그 흑부리영감의 눈을 속여 미리 진로소주 두 병을 은밀히 자루에 더 넣어두었던 것이다. 셈을 치르고 문턱을 가까스로 나서려는 순간, 이게 무슨 운명의 조화런가, 흑부리영감이 우리를 불러세우는 것이었다.

거 영감, 이보우다. 그 포대 좀 풀어 다시 한 번 헤아려 봅세. 계산이래 안 맞아.

나는 그때 겁에 질린 송아지처럼 눈에 흰자위가 유난히 많아진 아버지의 눈동자를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인 내가 무슨 구세주라도 돼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눈으로 내 얼굴을 쳐다봤던 것 같았다. 그러나 난들 달리 뾰족한 수가 있을 턱이 없지 않은가.

결국 흑부리영감은 두 병이 더 들어간 것을 밝혀냈고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나는 내가 희생양이 돼야 함을 느꼈다.

예, 맞아요. 그건 말예요, 제가 영감님 몰래 넣은 건데요…… 왜냐하면 접때접때 우리 집에서 사실 두 병을 빠뜨리고 갔기 때문에 응, 쌤쌤이어서요……

나는 이상하게도 맘이 편하고 당당했다. 나도 모르게 입가로 번져 나온 미소를 단속하느라 손바닥으로 입을 몇 번인가 틀어막기도 했다. 흑부리영감은 얼굴에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고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일단 직접적 책임을 모면한 아버지는 헤설픈 표정으로 날 쳐다 볼 뿐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흑부리영감이 당신과는 이제 거래 끝이야 하고 선언할까 봐 [㉠] 하는 얼굴이었다. 아버지처럼 이북 출신인 그 영감은 시장통에서 신용 하나는 보증수표나 다름없었지만 성질이 불같고 매몰차기로 소문이 자자한 위인이었기에 그런 상황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었다.

내레 이까짓 걸루다 당신하고 거래를 끊지는 않갔어. 다물정 모르는 아이들이 저지른 짓인데 으잉?

아유, 고맙습네다 영감님. 그저 어떻게 헤헤…… 우리 아이가 평소에는 그렇게 민한 애가 아닌데 어쩌다……

단……

흑부리영감이 아버지의 말끝을 가로챘다.

내 앞에서 저 아이를 호되게 가르치는 꼴을 봐 주라우. 내가 그깟 술 두 병이 아까워서 기러는 게 아니야. 하지만 기렇게 따끔하게 가르치는 건 바로 자식에게 말이야, 부모된 도리를 다하는 것 아니갔슴매? 내 이 자리서 이녁이 하는 깜냥을 두고보고서리 까짓것 그 술 두 병은 거저라두

주갔어. 내 이제껏 남한테 콩알 반쪼가리도 거져 준 적은 없지만서두, 이건 경우가 다르다우 아암.

호되게라믄…… 어떠케?

쯔쯧, 이녁도 함경도 아바이 출신이믄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드러케 다루는지는 알 만하잖소? 그걸 왜 내게 묻소 으응? 아 안 그렇소?

[B] 야! 간나야. 니 다시는 이런 민한 짓이래, 하겠니, 안 하겠니? 어서 말 좀 해 보라우.

짐짓 호령을 하는 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며 허공 높이 허우적거렸다. 단 한 대에 내 뺨은 무섭게 부풀어오르며 감각을 잃어갔다.

길티…… 기게 바로 진짜 교육이야.

혹부리영감의 격려를 받은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그에게 굽신거린 다음 또 한 차례 내 뺨을 기세 좋게 올려붙였다. 그러나 이 지독한 연극을 지켜보면서 나는 아픔을 거의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맑아지는 느낌뿐이었다. 그리곤 투시해 버리고 말았다.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의 눈 속에 흐르지도 못하고 괴어 있는 눈물을.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애비라는 존재는 되지 말자. 아마도 나는 그때 그런 끔찍한 다짐을 했는지도 모른다.

- 김소진, 「자전거 도둑」 -

1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사건의 관찰과 서술 시간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② 구체적인 소재를 통해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다.
③ 독백적 어조로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④ 방언을 활용하여 인물을 사실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⑤ 사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를 독자에게 맡기고 있다.

14. [A], [B]의 발화가 갖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에서 표출된 부자간 갈등이 [B]에서 해소된다.
② [A]에서 드러났던 아버지의 권위가 [B]에서 무너진다.
③ [A]에서 보여 줬던 구명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집착이 [B]를 전환점으로 사라진다.
④ [A], [B] 모두 아버지가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암시한다.
⑤ [A], [B] 모두 부당하게 억눌려 살아온 아버지의 과거를 유추하게 한다.

15.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전전긍긍(戰戰兢兢)
② 노발대발(怒發大發)
③ 동분서주(東奔西走)
④ 우왕좌왕(右往左往)
⑤ 의기양양(意氣揚揚)

16. 위 글을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 주요 장면을 다음과 같이 그려 보았다. 제작 회의 과정에서 오갈 말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장면 1> <장면 2> <장면 3> <장면 4>

①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하면 '<장면 2> → <장면 3> → <장면 1> → <장면 4>'가 되겠군.
② <장면 1> 앞에 주저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대비되는 단호한 혹부리영감의 표정을 삽입하면 좋겠어.
③ <장면 2>에서는 물건을 담는 나의 행동을 방해하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클로즈업해야겠어.
④ <장면 3>에서는 극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효과음을 사용하면 어떨까?
⑤ <장면 4> 다음에는 아버지의 얼굴 위에 어른이 된 나의 얼굴을 오버랩시키며 장면을 전환하면 어떨까?

- 정답: 13.⑤ 14.② 15.① 16.③

◆ 13년 6월 고2 B형 37~39번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사를 오고 나서 한 달이 지나도록 아버지는 실상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다. 막상 닥치고 본즉, 입에 풀칠을 하는 일처럼 어려운 문제가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반평생을 넘어 불혹의 나이를 살아오는 동안 당신이 의지해 온 것이라곤 오직 몇 마지기의 땅뙈기밖엔 없었다. 흙은 그래도 ㉠ 정직한 상대였다. 못지않게 정직한 아버지의 손을 거의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앞에 놓인 상대는 결코 함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못 되었다. 정직한 만큼 아버지는 무능했다.

그만하면 가진 돈도 바닥날 때가 되었을 법하다고 느낄 무렵, 아버지는 몇 가지 도구들을 떠메고 들어왔다. 하나는 풀빵을 구워 내는 빵틀이었고, 다른 하나는 냉차 항아리였다. 뒤엣것은 내가 길거리에서 흔히 보아온 물건이었지만, 앞의 빵틀은 난생처음 대해 보는 도구였다. 그것은 모두 스물 네 개의 구멍이 가로세로 질서정연하게 파인 무쇠판이었다.

흔한 냉수 한 사발도 공짜가 없는 게 도시의 삶이었다. 제자리에서 잠시 돌아누워도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곳이다. 무위도식을 하며 산 한 달 동안 우리 가족이 터득한 지식이란 도시생활의 그 ㉡ 냉엄한 질서였다. 어쨌건 이 일은 아버지로서 ㉢ 처음이자 마지막 투자임이 분명했다.

무슨 요술단지라도 구경하듯 신기해 하는 식구들을 둘러보며 그러나 아버지는 호기 있게 말했다.

"자, 우리도 내일부터는 길거리로 나서는 거다. 그래 가지고 이놈의 빵틀로 마구 돈을 찍어내는 거야. 암!"

아버지의 그 우직한 낙관론을 비판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못지않게 우리의 기대 또한 컸다. 감히 입을 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 설레게 소망했다. 그것이 단순한 빵틀이기를 넘어서 한꺼번에 ㉣ 스물넉 장의 지폐를 찍어내는 기계일 것을…….

다음날 우리 가족은 한길로 진출했다. 번잡한 대로의 한 귀퉁이를 무단 점거한 우리는 사과 궤짝 위에다 문제의 빵틀을 걸었다. 그러고는 탄불을 피우고, 밀가루 반죽과, 팥소(앙꼬)를 내왔다. 물론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흙을 만져 오던 손은 어설프고 투박했다. 아버지가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우리는 키들거리며 웃어댔는데 결국 그 웃음이 쑥스럽고 거북한 감정을 많이 덜어주었다.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첫 완제품을 만들어 낸 것은 한낮이 되어서였다. 아버지가 조금은 떨리는 손끝으로 그 중의 한 개를 꺼내들었을 때, 우리는 때맞추어 도시의 하늘을 무겁게 휘저으며 울려 퍼지는 정오의 사이렌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우리도 아버지를 따라 풀빵을 하나씩 집어 들었다. 그러고는 요모조모로 관찰했다. 막 깨어난 병아리처럼 귀엽고 샛노란 빛깔이었다. 치자 물을 너무 들인 탓일 거라고, 어머니가 즉석에서 분석했다. 누나는 또 팥소가 바깥쪽으로 흘러나와 있는 것을 가리키며 아무래도 반죽이 묽은 듯하다고 평가했다.

[A]
"옳아, 다음번엔 주의를 해야겠어. 자, 그럼 맛들을 보지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제히 한 입씩 빵을 베어 물었다.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저마다 골똘히 맛을 음미하면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어떤가, 맛이?"

아버지가 조심스레 물었다. 하지만 선뜻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들 꿀 먹은 벙어리였다. 뜨겁고, 달착지근하고, 그리고 뒷맛이 약간…… 쓴, 그러나 이 맛을 어떻게 평해야 옳을 것인가?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그런 유의 음식을 시식하는 처지였던 것이다.

"뒷맛이 좀 쓴 것 같군……."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먼저 품평했다. 좀 난감한 표정이었다.

"그래요. 뒷맛이 이상하게 써요."

어머니가 뒤이어 말했고, 우리도 조심스레 동의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온종일 손님을 기다렸지만 풀빵을 찾는 사람은 없었다. 생업을 시작한 첫날 밤, 아버지는 팔리지 않은 풀빵을 가득 들고 돌아온다. 이에 가족은 늦은 저녁을 먹는다.

야릇한 분위기였다. 조금은 허전하고, 또 조금은 거북스러운 그런 분위기였다. 하지만 결코 짜증스럽거나 서글픈 기분은 아니었다. 우리는 다만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려 하지 않았을 따름이었다. 시선을 내리깐 채 우리는 말없이 젓가락을 집어 들었다.

"자, 먹자구. 밤도 깊고 하니 오늘 저녁밥은 이걸로 때워야지 뭐."

[B]
만찬의 시작을 선언하듯 아버지가 말하고 풀빵 하나를 통째로 입에다 넣었다. 그러고는 유리잔을 집어 들며 또 말했다.

"서양 사람들은 빵만 먹고 산다는데 우리라고 한두 끼 정도야 어떨라구. 시골 구석에 백혀 있어 봐. 이런 재미가 어디 있나……."

나는 풀빵을 하나 집어 아버지처럼 한입에 냉큼 밀어 넣었다. 그것은 식어서 차고 딱딱했다. 하지만 나는 열심히 먹어 댔다. 미적지근한 냉차로 목을 연신 축여가면서.

비로소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누나와 내가 해종일 찍어 낸 것은 아버지가 기대하던 지폐가 아니라 역시 풀빵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또 생각했다.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지폐를 찍어 내는 일에는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만찬을 끝낸 우리 가족이 ㉤ 성냥개비들처럼 나란히 드러누웠을 때쯤엔 고단한 이웃들의 숨소리가 판자벽을 낭자하게 넘어왔다.

– 이동하, 「장난감 도시」 –

37.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중심 사건을 다양한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②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모두 알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③ 사건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④ 작품 밖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⑤ 작중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내면과 경험한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38. <보기>를 토대로 ㉠~㉤의 의미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장난감 도시」는 6·25 전쟁이 끝난 직후 생계를 위해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장난감 도시'는 판자촌을 빗댄 표현이자 차가운 도시의 단면을 암시하는 제목이다.

① ㉠: 노력한 만큼 대가를 돌려주는 흙에 대한 생각의 표현이다.
② ㉡: 이주한 후에 깨닫게 된 도시의 속성을 말해준다.
③ ㉢: 요행을 바라고 과감하게 투자했던 시도임을 말해준다.
④ ㉣: 경제적 여유를 간절히 바라는 가족의 기대감이 담겨 있다.
⑤ ㉤: 좁은 방에서 가족들이 몸을 붙여 잠을 자는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다.

39.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A]에서 풀빵 맛을 본 후 눈치를 살피는 가족의 모습에는 암담한 앞날을 예감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
② [B]에서 아버지의 대사에는 거북한 분위기를 풀어주려는 의도가 엿보이지만, 그 안에는 착잡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
③ [A]와 [B]에는 가족들이 각박한 현실과 가난한 삶을 가족애로 이겨내려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④ [A]와 [B]에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무능함을 느끼며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⑤ [A]와 [B]에서 아버지의 물음에 대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모습에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다.

- 정답: 37.⑤ 38.③ 39.②

◆ 12년 10월 고3 26~29번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침 점심을 나는 일쑤 걸렀다. 거지 같은 위를 채우기 위해 비를 맞으면서까지 누나가 있는 두부 공장으로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나의 얼굴을 보는 일도 반갑지 않았지만, 거기다 다리 한 짝이 없는, 두부살의 오빠를 보는 일은 더 싫었다. 친구 태길이가 약이 오를 때면 매번 들먹이듯, 그가 내 미래의 매형이란 사실 때문에 나의 굴욕감은 더 컸는지도 모른다. 도대체가, 누나는 왜 두부살의 네 오빠들 중에서 하필이면 다리 한 짝을 전쟁터에다 내버리고 온 사내를 골라잡은 것인지 그 점이 나를 더 속상하게 했다.

저녁마저 거르는 날은 누나 쪽에서 나를 찾아왔다. 치마폭에 감추어 온 것들을 가만히 내 머리맡에 내려 두고는 잠자코 돌아섰다. 누나는 진작부터 나의 적의를 눈치 채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의 감정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그녀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때로는 내 이부자리 속으로 살며시 기어들어 자고 가기도 했는데 그런 날은 두부 공장에서 밤일이 없는 때뿐이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누나에 대한 나의 적의가 조금이라도 늦추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지난 겨울에 비해 누나는 확실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고, 친구 두부살처럼 뽀얗게 살이 올라 있었다. 수증기가 자욱한 작업장에서 누나가 때때로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을 나는 본 적이 있었다. 그 고된 노동과 천대에도 불구하고 누나는 지극히 행복한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어머니가 마침내 숨을 거두었을 때 그토록 절망에 빠져 있던 그녀가 이제는 행복한 것이다. 친구 두부살의 집에서, 다리 한 짝이 없는 그 사내의 곁에서 말이다.

누나의 그 건강과 행복이 나의 적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때로는 적의를 넘어 어떤 혐오감까지도 느끼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일테면 누나에게서 그 기분 나쁜 냄새를 맡았을 경우였다. 그랬다. 그것은 언젠가 어머니를 따라 외삼촌 댁에 갔다가 그에게서 맡은 바 있었던 그 녹슨 총기 냄새였다. 외삼촌은 다리 대신 팔 한 짝을 전쟁터에다 묻고 온 사내였던 것이다.

다리 한 짝이 없는, 두부살의 오빠에게서도 분명히 그 냄새가 났다. 누나가 모처럼 내 곁에서 잠들어 있던 어느 날 밤, 그자가 느닷없이 우리의 방으로 굴러들었던 것이다. 그를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누나는 기왕에 민며느리로 들어간 사람이었고, 나는 또 그 사내의 속절없는 처남인 셈이었다. 당당한 틈입자를 우리는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그는 흠뻑 젖어 있었다. 외양은 빗물에 젖어 질척거렸고 영혼은 술에 젖어 마비돼 있었다. 그가 좁은 방 한가운데에 사지를 내던지고 철버덕 드러누웠을 때, 솔직한 내 심정으로는 대갈통을 목침으로 까 주고 싶었다. 하지만 야릇한 것은 누나의 태도였다. 그녀는 다소 놀란 표정이긴 했지만 그러나 곧 침착해졌다. 쌀자루처럼 널브러진 사내의 몸뚱이로부터 젖은 옷가지들을 한 겹씩 차근차근 벗겨 냈고 머리칼이며 얼굴이며 몸뚱이 등 더 이상 벗겨 낼 수 없는 부분들은 마른 수건으로 정성 들여 닦아 내고 있었다. 나는 말문이 막힌 채 그녀의 거동만을 멍하니 지켜보았을 따름이었다. 아마도 누나는-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맹렬히 저항했다-정상이 아니다. 누나는 머리가 어떻게 되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누나의 얼굴에 광기는 없었다. 거의 아무런 표정도 담고 있지 않은, 지극히 담담하고 조용한 얼굴이었을 뿐이었다.

"나 좀 도와 주렴."

[A] 누나가 내게 말했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누나와 그 사내에 대한 적의에도 불구하고 나는 왠지 거부할 수가 없었다. 누나와 둘이서 간신히 그를 한편으로 옮겨 뉘었는데 그때 나는 비로소 사내의 의족을 보았다.

삼십 촉짜리 흐릿한 조명 아래서도 그것은 차갑고 이물스럽게 거기 놓여 있었다. 날카로운 비수에 가슴이 찔리듯 나는 언젠가 만난 적이 있는 외삼촌을 기억해 냈고, 그리고 그에게서 맡았던 저 녹슨 총기의 냄새를 다시 맡았던 것이다.

[B] 밤새 땅을 파헤치느라고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 판자촌 골목 어떤 지점을 파헤쳐도 온갖 무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엠원 소총에서부터 박격포탄에 이르기까지, 부러진 대검에서부터 시작하여 탱크의 캐터필러 조각에 이르기까지, 군번이 새겨진 알루미늄 조각에서부터 깨진 철모에 이르기까지…… 모양도 크기도 용도도 각양각색인 그 물건들은, 그러나 한결같이 뻘겋게 녹이 슬어 있었다. 지난 전쟁을 실제로 목격한 적이 없던 나는 몹시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소리쳤다.

"야, 여기다 여기! 바로 여기서 전쟁을 했던 거야……."

[C] 그러고는 문득 깨어났다. 문살이 훤하게 밝아 오고 있었다. 사내는 깊은 잠에 떨어져 있었지만 누나는 단정한 차림새로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너 어디 아프니? 헛소리를 하게……."

그러면서 누나가 내 이마를 짚었다.

"치워!"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나는 꽥 소리를 치며 누나의 손을 떨쳐 버렸다. 그러고는 홑이불 자락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썼다. 갑자기 누나가 혐오스러워졌다. 그녀의 손에서도, 몸뚱이에서도 녹슨 총기의 냄새가 물씬물씬 풍겼기 때문이다.

– 이동하, 「장난감 도시」 –

26. 위 글에 제시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때, 다음 중 가장 처음에 올 것은? [1점]

① 어머니가 숨을 거둔다.
② '나'가 외삼촌 댁을 방문한다.
③ 두부살의 오빠가 우리 방에 찾아온다.
④ '나'가 꿈에서 깨어나 누나의 손을 뿌리친다.
⑤ '나'가 두부 공장에서 웃으며 일하는 누나를 본다.

2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② 객관적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인물의 행위를 서술하고 있다.
③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 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인물의 체험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심리와 태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권위적으로 논평하여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A]~[C]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에서는 '녹슨 총기'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작품이 한국 전쟁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녹슨 총기'는 전쟁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녹슨 총기의 냄새'는 전쟁으로 인해 빚어진 비정상적인 현실에 대한 '나'의 심리적 반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① [A]의 '녹슨 총기의 냄새'는 '사내'에 대한 '나'의 심리적 반응과 관련이 있다.
② [A]에서 '녹슨 총기의 냄새'라는 공통점을 지닌 '사내'와 '외삼촌'은 '나'를 둘러싼 비정상적 현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B]를 통해 '녹슨 총기'가 전쟁의 상흔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B]에서 '나'가 전쟁과 관련된 꿈을 꾼 이후 '녹슨 총기 냄새'는 [A]의 '사내'에서 [C]의 '누나'로 전이된다.
⑤ [A]에서 [C]로 갈수록 '녹슨 총기 냄새'를 불러일으키는 '나'의 심리적 반응의 대상이 축소되고 있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결핍은 익숙하던 것이 사라진 데서 비롯한다. 그로 인해 결핍의 상황에 처한 존재는 주변을 이질적인 것으로 느끼게 되며, 그것은 주변에 대한 적대감으로 심화되기도 한다. 이질감과 적대감은 결핍에 빠진 존재의 내적 불안감의 표현이지만, 그 이면에는 결핍이 극복되기를 바라는 강한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

① 누나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결핍으로 인한 이질감과 적대감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나고 어머니가 숨을 거둔 상황은 익숙하던 것이 사라진 '나'의 결핍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③ 두부살의 오빠에 대한 '나'의 혐오감은 '나'에게 익숙하던 존재였던 '누나'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누나에 대한 '나'의 맹렬한 저항은 누나를 잃은 결핍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강한 욕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⑤ 누나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적대감은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답: 26.② 27.④ 28.⑤ 29.①

◆ 22년 3월 고2 26~29번

[26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적어도 그 다락 속에는 어머니의 은밀한 움직임에 명분을 줄 만한 물건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곧 그것을 발견했고 해답도 얻어 낼 수 있었다. 그것은 무심코 지독*의 뚜껑을 열어 봤을 때였다. 지독의 뚜껑을 열어제치는 순간, 나는 굳어 버린 듯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나는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소스라쳐 지독의 뚜껑을 닫고 문 쪽으로 기어 나갔다. 이불이 깔려 있는 방은 조용했고 툇마루에서는 옹알이를 하고 있는 아우의 기척이 들려 왔다. 나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독의 뚜껑을 벗겼다. 놀랍게도 그 지독엔 가녘까지 넘쳐 내릴 것 같은 곡식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것은 도정까지 마친 하얀 멥쌀이었고 옆에 있는 지독엔 보리쌀이 반 넘어나 채워져 있었다. 채워 놓은 곡식에서 풍기는 특유의 비릿한 누린내가 코로 스며들었다. 문득 지독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평두가 되게 손등으로 꼭꼭 다져 놓은 곡식 사래 위에는 ㉠다섯 손가락의 형용이 너무나 선명한 손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식판에 요형(凹形)으로 파놓은 음각 무늬처럼 선명한 어머니의 손자국을 보는 순간 나는 섬짓한 긴장을 느꼈다. 그것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장군의 견장과 같은 것이었다. 내가 만일 그 쌀독 속을 헤적여 놓게 되면 어머니는 당장 다른 사람의 범접을 눈치 채게 될 것이었다. 어머니가 곡식을 다루는 꼼꼼한 경계심이 그 손자국에는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어머니는 심란해질 때,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에서 찢어지는 가난을 목도했을 때 이 다락으로 올라와서 지독의 뚜껑을 열어 보곤 했을 것이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형제들을 밖으로 내몰고 몰래 지독의 곡식을 채워 왔을 것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지독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이 많은 곡식을 다락 위에다 채워 두고도 우리 세 식구는 속절없이 배를 주려 왔던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 스스로 파 놓고 있는 함정의 모순을 어떻게 삭여 내야 할지 전혀 궁리가 닿지 않았다. 그때처럼 어머니를 미워했었던 적은 없었다. 단 한 톨의 손상인들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섬짓한 의지를 손자국에서 발견하는 순간, 나는 사냥꾼에게 불을 맞고 죽을 때를 기다리는 짐승처럼 처절한 기분이었다. 곡식들이 지독 가녘으로 넘쳐 날 것 같이 채워질 동안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손자국으로 채워지는 곡식을 가늠해 왔을까.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도 어머니 스스로 만든 위안 속에서 살아온 것이었다. 그 곡식이 밥이나 죽으로 둔갑하지 않는 한 그것은 언제까지나 어머니의 곡식일 뿐 우리 세 식구의 곡식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다. ㉡마루로부터 와락 뛰어든 아우의 다급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히야, 엄마 온다."

[중략 부분 줄거리] 다락에 숨어 있다가 어머니에게 발각된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혼내는 대신 쌀밥을 해 주셨다.

어머니가 우리들의 자존심을 부추기고 나온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의 밥을 먹고 난 뒤 설사에 부대끼느라고 밤잠을 설쳐야 했던 **그날 밤** 이후로 어머니는 고미다락의 문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락에 대해서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채워 두기를 게을리하지 않던 어머니가 채워 둔다는 수칙을 스스로 깨뜨려 버린 것이었다.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그 내심을 알 수 없었다. 한동안이 지난 뒤에야 그것을 발견했던 우리는, 채워진 다락에 대해서 가졌던 강렬한 호기심보다 더욱 강렬하게 다락의 일에 빨려 들고 말았다. 어느 날 아우는 다락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일깨워 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코대답만 할 뿐 화들짝 놀라서 단속하려 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다락 출입을 중지해 버린 것도 아니었다. 옛날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앞에서 그곳을 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조마조마하고 비밀스런 발자국 소리도, 우리들 몰래 길게 몰아쉬던 숨소리도 그 뒤로는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어머니는 자주 허리가 저리다는 둥, 청소를 해야겠다는 둥 혼잣소리로 다락 출입의 고초를 늘어놓곤 하였다. 지극히 일상적인 그런 말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다락에 대한 신비감을 반감시키는 단서가 됐을지도 몰랐다. 그렇다 해서 다락에 대한 원천적인 호기심이 희석되진 않았다. 다만 호기심의 방향이 바뀌어진 셈이었다. 그 다락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동안 그것은 오직 어머니의 것이었다. 그런데 다락문이 개방된 이후로 그것은 우리 세 사람 모두의 것이 되었다. 아우와 나 사이에 은연중에 지켜진 관행에 따른다면, 내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아우와 짝이 되어 보낸다는 점이었다. 심지어 측간을 가는 일조차 행동 통일이 되어야 직성이 풀렸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그날 우리는 한길에 있을 아이들을 찾아서 무심코 고샅길을 벗어나고 있었다. 그때 아우는 걸음을 딱 멈추었다.

"히야?"

"……?"

"집 비워 두고 우리 둘 다 나가면 안 된다."

㉢아우의 반란은 의외였다. 우리는 어머니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시각이라면 종일토록 줄곧 집을 비워 두고 쏘다녔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도 그랬었겠지만 우리들에게도 편했다.

"니는 가기 싫어졌나?"

"아니다, 가고 싶다."

"그런데 왜 앙탈이고?"

"히야는 다락문이 열려 있는 거 모르나, 누가 들어와서 다락문 열면 우짤락꼬."

그랬다. 그제서야 나도 뒤통수가 찡했다. 우리는 한길로 진출하려던 속셈을 바꾸어야 했다. 다락문을 예전처럼 다시 채워 놓는다면 우리들 나들이에 꺼림칙함을 지워 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 능력으로는 그것이 손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어머니가 열쇠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었다. 그것이 난감했다. 나는 공연히 아우에게 쏘아붙였다.

"그러면 우짤래? 니 혼자서 집 지키고 있을래?"

아우는 아무런 갈등도 보이지 않고 고개를 주억거렸다. 고개만 주억거렸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진 좀처럼 내뱉은 적이 없던 한마디를 서슴없이 덧붙였다.

"히야 혼자 갔다 오니라."

그러한 ㉤아우의 대견함은 낯설고 놀라운 것이었다.

– 김주영,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

* 지독 : 종이를 삶아 짓찧어서 만든 독.

2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회상을 통해 주인공이 직접 경험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②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③ 장면의 빈번한 전환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폭로하고 있다.
④ 동시에 발생한 사건의 병치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⑤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미래의 일을 암시하고 있다.

27. 함정의 모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곡식을 많이 모았지만 정작 모은 곡식을 숨겨 가족이 굶주리게 한 것을 의미하는군.
② 명분이 있을 만한 물건들이 없었음에도 어머니가 다락을 소중히 여겼던 것을 의미하는군.
③ 다락에 채워 놓은 자물쇠가 도난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군.
④ 쌀로 채워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보리쌀로만 채워진 지독을 발견한 것을 의미하는군.
⑤ 곡식을 온전히 보관하기 위해 지독을 이용했지만 곡식의 누린내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을 의미하는군.

2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누구도 범접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어머니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② ㉡: 어머니가 허용하지 않은 공간에 출입한 것을 들킬까 염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③ ㉢: 행동 통일이 되어 왔던 관행을 '나'가 깨뜨리려 한 일에 대한 아우의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④ ㉣: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은 생각에 제동이 걸리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⑤ ㉤: 혼자서라도 다락을 지키겠다는 아우의 언행이 뜻밖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29.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 이 작품을 감상할 때는 '그날 밤'을 전후로 달라지는 인물의 행동과 심리, 사건의 전개 양상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품에 나타난 시간의 흐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때, 그날 밤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까요?

Ⓐ 이전 — 그날 밤 — Ⓑ 이후

① Ⓐ에서 다락에 대해 품었던 '나'의 원천적인 호기심이, Ⓑ에서 모두 희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에서 다락의 곡식에 대해 가졌던 어머니의 꼼꼼한 경계심이, Ⓑ에서 느슨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에서 다락의 곡식에 대해 어머니가 가졌던 애착을, Ⓑ에서 '나'와 아우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④ Ⓐ에서 어머니만 짊어졌던 다락에 대한 책임감이, Ⓑ에서 '나'와 아우에게도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⑤ Ⓐ에서 몰래 다락방에 출입했던 어머니가, Ⓑ에서 '나'와 아우가 바라보는 앞에서도 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정답: 26.① 27.① 28.③ 29.①